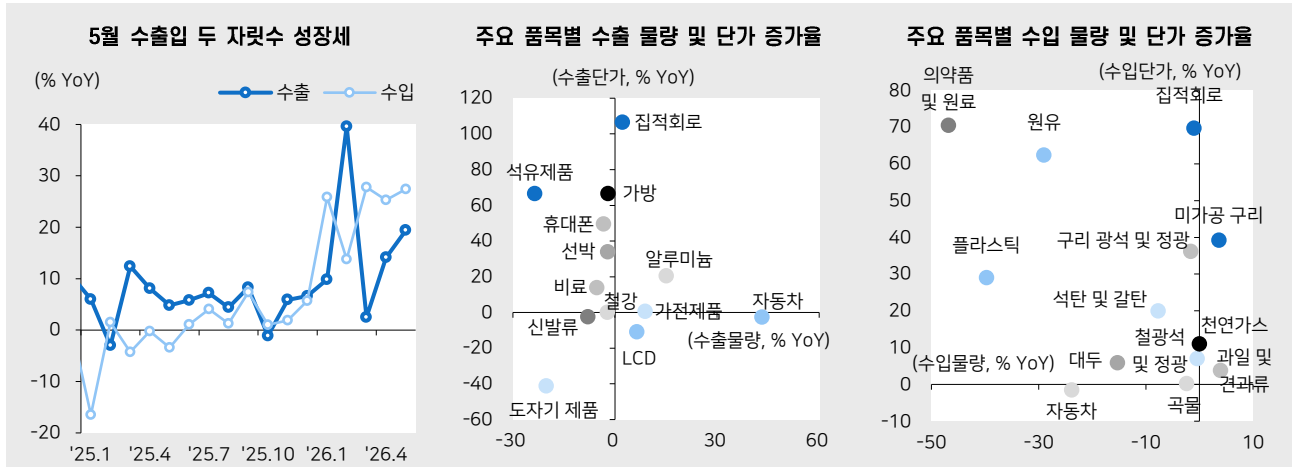


오늘의 차트 최설휘 연구위원

5월 중국 수출입 점검



자료: 해관총서,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중국의 5월 수출입은 4월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해 블룸버그 컨센서스(15%)를 상회했고, 수입도 컨센서스(26%)를 상회한 27.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6년 1-5월 누적으로도 수출 15.4%, 수입 24.3%로 작년 동기간 증가율(각각 5.9%, -4.8%)을 큰 폭으로 웃돌며 올해 수출은 견고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 분해해 보면 이번 수출입 증가는 물량이 아닌 가격에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제2사분면(물량-, 단가+)에 집중된 석유제품, 가방, 휴대폰 외에도, 제1사분면(물량+, 단가+)에 위치한 집적회로도 사실상 가격 상승(+106.5%)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제3,4분면에 위치한 非하이테크 품목의 소외도 공존한다. 자동차는 물량 밀어내기가 해소되지 않아 수출단가마저 동기대비 하락한 후 물량(+43.1%)으로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수입은 제2사분면(물량-, 비용+)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수입 비중이 큰 주요 품목 대부분이 물량은 감소한 반면 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수입액 증가를 견인했다. 즉 27.4%에 달하는 높은 수입 증가율 역시 가격 효과에 기댄 것으로, 수입 물량이 전년 동월대비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은 내수 수요 회복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수출입 호조는 글로벌 가격 상승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 내수 회복이 글로벌 가격 상승 흐름을 누리고 있는 품목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을 영위하는 중국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